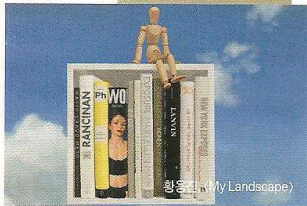




**꼭갈 있는 책 풍경** '책'이라는 사물이 담고 있는 무수한 의미들 그리고 가치들에 대해 나열하려면 오히려 막막해진다. 특유의 보편적 정신사를 담은 축적물이기도 하며, 첫사랑의 열정을 투영한 시 한 편이 담긴 사적 소유물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세상 모든 것에 예민한 작가들의 시선에 걸리는 오브제로서의 '책'은 전시 안에서 그 특별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갤러리 전시에서 열리는 '색깔 있는 책 풍경'에서는 책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는 다섯 작가들(김근배, 김성호, 전영근, 임영수, 황윤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 김근배에게 책이 곧 사이라면, 김성호에게 그것은 일상적 풍경이다. 가을과 책은 잘 어울린다는 건 통속적이지만 맞는 말이다. 9월 26일~10월 26일까지, 갤러리 진선. 문의 02-723-3340



**임민욱 Jump Cut** 고정되어 있는 배경에서 촬영한 장면을 편집하여 연거푸의 동작이 시간을 뛰어넘은 듯하게 보이는 편집기법 '점프컷'. 점프컷의 이질감은 비단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로의 피맛골과 종로타워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세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거듭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다. 임민욱의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근대사의 단면에 침투한 불연속성과 모순을 물음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영상,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이렇듯 틈새를 벌여놓았으니, 이제 그 컷의 사이를 채우고 다음을 건 관객의 몫이다. 8월 23일~10월 12일까지, 아트선재센터. 문의 02-739-7067 피쳐 에디터/정아진

**SIDE** 작가 이동기가 회화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 함연주가 머리카락 오브제 작품만 전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이라는 장르 안에 회화, 사진, 조각 등의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지만 예의 이름이 알려지면 그와 함께 그의 매체 하나 정각인된다. 그런데 여기, 고정된 매체로부터 탈고픈 22명의 예술가들이 '두 아트 갤러리'였다. 그리고 기존 작품세계와 전혀 다른 그들의 '숨은 면'을 소개한다. 강홍구, 도윤희, 김 정재호, 함경아. 이 이름들과 함께 떠오르는 작품들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아트 갤러리에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3일~10월 12일, 시간동 두 아트 리. 문의 02-2287-3500



**sh Kallat 지티시 칼라트 개인전** 신화가 존재하지만 처열한 일상이 뒤는 인도의 오늘을 담은 인도미술은 특유의 화려함과 대담함으로 무장한 채 갤러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74년생 인도 작가 지티시 칼라트는 인도의 경제발전 신화 이면에 존재하는 도시문제, 종교문제, 빈부격차 등을 아우르는 인간사의 우려들을 담아 올가을 서울에 선보인다. 뽕조각으로 제작한 실제 크기의 자동차, 혼란스러운 도시 이미지 아래 브론즈로 캐스트 된 새의 다리가 붉은 폭 4.8m의 페인팅에는 불길함과 혼돈 그리고 도시의 달콤함이 아이러니하게 공존한다. 하루하루의 생존이 곧 모험인 도시 몸바이에 살면서 그곳을 예술적 실천의 원천으로 여긴다는 지티시 칼라트의 강렬하면서도 반성적인 작품들은 아라리오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 8월 24일~9월 24일까지. 문의 02-723-6190



# HOT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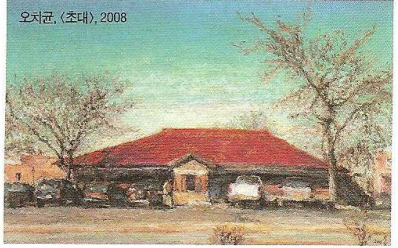


**DAY TO DAY** 모든 예술작품의 위대한 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신인 아티스트 리안 슈나이더와 에밀리 노엘 램버트 또한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캔버스 위에 옮긴다. 한 쪽의 그림일기화도 같은 그 그림들을 보며 우리는 그림 속의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작가가 사용한 컬러가 가진 감정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굳이 유추해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기장을 엿보듯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탐미하기만 하면 된다. 8월 27일~9월 30일까지, IMART. 문의 02-3446-3766 피쳐 에디터/정아진

# MORE & GOOD

누가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했든가? 이토록 전시가 풍성한데, 객원 에디터/박성영

**오치균 Santa Fe 展** 강렬한 태양,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도로, 그리고 그곳의 황토색 때문에 산타페가 미국인 줄 몰랐다. 분명히 미국 뉴멕시코주의 주도인 산타페에서 작가 오치균은 일 년 남짓을 살았다. 95년도의 산타페행이 8년간의 뉴욕 생활을 마친 뒤의 결심이었다는 점에서 그에게 산타페는 매우 강렬했다. 자신이 살았던 곳을 그리는 그에게 뉴욕은 눈 내리는 희색빛 겨울이었다면 산타페는 '너무도 따뜻한 하늘 너무도 빨간 하늘,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혼 반대편 옥색의 하늘(작가 노트 중)'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 10여 년 간 그 리움으로 그려온 산타페 연작들을 만나는 초가을의 평일 오후는 어떠할지? 전시는 새롭게 오픈한 갤러리 현대 강남에서 9월 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더불어, 한국 현대미술의 지난 수십 년을 회고할 수 있는 굵직한 전시들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다. <김창열3백남준 展>(9월 3일~28일), <단색화(單色化) 정상화, 이우환, 문승근 展>(9월 3일~28일) 문의 02-519-0800



하늘,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혼 반대편 옥색의 하늘(작가 노트 중)'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 10여 년 간 그 리움으로 그려온 산타페 연작들을 만나는 초가을의 평일 오후는 어떠할지? 전시는 새롭게 오픈한 갤러리 현대 강남에서 9월 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더불어, 한국 현대미술의 지난 수십 년을 회고할 수 있는 굵직한 전시들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다. <김창열3백남준 展>(9월 3일~28일), <단색화(單色化) 정상화, 이우환, 문승근 展>(9월 3일~28일) 문의 02-519-0800